

## 광주문예회관 리모델링에도 '오페라의 유령' 불발 아쉬움



광주문예회관이 개관 32년만에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6월 11일 재개관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이하 회관)이 개관 32년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다. 당초 계획보다 리모델링 기간이 늦어지면서 지난 2년 3개월간 광주에서는 공연 환경이 좋은 공간에서 대형 뮤지컬과 클래식 작품 등을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관은 시민 설문 등을 거쳐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회관은 대극장, 소극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음향 테스트 등을 거치며 시운전중이다. 회관은 291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디지털 콘솔 교체 등으로 다양한 장면 연출과 무대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게 됐고 무대 바닥 전면 교체, 무대조명 인프라 개선 등을 진행했다.

공연장 객석 바닥은 카페트에서 나무로 교체하고 객석은 의자 크기와 객석 간 간격을 넓혀 쾌적한 관람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극장은 1772석에서 1517석으로, 소극장의 경우 504석에서 464석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연장 좌석 배열이 동반 관람자를 고려, 짝수인 데 반해 홀수로 좌석을 배치한 점은 아쉽다. 시는 고

2년 3개월 공사 마치고 재개관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  
다양한 공연 인프라 구축 필요  
개관 공연 6월 11일 빈 심포니

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네이밍 도네이션'을 도입, 객석에 명패를 부착할 예정이다.

로비에는 대형 티켓박스를 설치했으며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로비 의자 교체 등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지금까지 광주는 열악한 공연장 환경으로 '오페라의 유령'은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단행하면서 혹시 광주에서도 '오페라의 유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오페라의 유령' 제작진의 회관 답사 결과 '공연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내년 5월 공연을 추진하던 '오페라의 유령' 해외 오리지널 제작팀과 지역 기획사가

지난 3월 비공식적으로 무대를 둘러보고 공연 여부를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객석으로 대형 상들리에를 떨어뜨려야 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위해 오케스트라 피트 상부에 상드리에를 매달아야 하지만 현재 공연장 구조상 천정에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무대 중앙에 받고 정식으로 설치된 음향반사판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르별 전문 공연장이 추세인 상황에서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의 한계를 드러낸 부분으로, 다양한 공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관 기념 공연은 오는 6월 11일 열리는 빈 심포니 내한공연으로 장한나가 지휘를, 2021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부르스 리우가 협연한다.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한 첫 공연은 오는 5월 30일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서울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한다. 소극장에서는 같은 날 11시 음악산책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본궤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보지 선정 광주·전남 머리 맞대야

해묵은 현안사업인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최대 숙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중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군공항의 가치를 환산한 양여 재산의 가액만으로 새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해 예비 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전 부지 선정 전이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군공항 중전 부지는 관광 특구나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 자유 특구, 지역특화 발전 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이전·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광주 혼자 힘으로만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제 정부의 책임 아래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중전 부지 개발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르면 시일 안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특별법 통과 뒤 "군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광주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광주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학대 아동 발굴 위해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부터 취약계층 아동 지

원,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응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 1000명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집중 전수 조사한다. 방문 조사를 실시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첫GPT에 5·18 물어보니... ▶6면

복스- '흐르는 강물따라 건다 뜬다 느끼다' ▶14·15면

KIA 윤영철·곽도규 설레는 1군 데뷔 준비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의료광고심의필 제230412-중-152531호]

### 새로운 세대와의 만남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 조선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조선대학교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고객센터 1811-7474 인터넷 https://hosp.chosun.ac.kr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